

치솟는 물가 속 숨막히는 서민가계

외식·학원 끊어도 월 30만원씩 빛

주부 김진희(40·광주시 서구 광천동)씨의 요즘 살림살이는 너무 팍팍하다. 남편의 연봉은 2년째 3천10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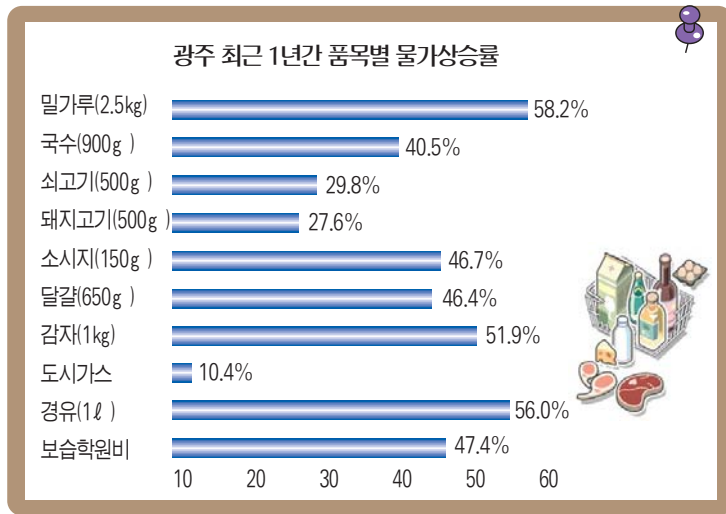
생활품 가격이나 차량 유지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9월에는 아파트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등 이래저래 가계운영이 험겨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생활물가 공포

김씨는 “올 들어 생활품이나 교육비가 연일 뛰는 바람에 지난해말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매달 생활비가 30만원 가량 부족하다”며 “6월만 하더라도 지출이 240만원에 달하면서 1년 전(195만원)보다 45만원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물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광주·전남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지난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올 들어선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7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뛰었다. 이는 2000년 물가지수 개편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소비자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교육비의 경우도 비슷하다. 광주는 보습화원비가 평균 11만2천원으로 1년새 47.4%나 뛰었다. 영어 등 대입 학원비도 평균 14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 올랐고, 같은 기간 태권도 학원비도 8.1% 상승했다.

주부 최모(44·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올해 초 적금을 깨서 큰 딸의 등록금을 낼 만큼 교육비 부담

허리띠 졸라매

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둘째 아이의 학원은 3개에서 어쩔수 없이 1개로 줄였다”며 “학원비가 무슨 근거로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지었다.

음식·식품 등 전반적인 서민물가도 치솟고 있다. 밀가루의 경우 2.5kg들이 가정용 중력분이 지난해 6월 2천370원에서 현재 3천750원으로 58.2%나 뛰었다.

삼겹살은 500g의 가격이 9천950원으로 1년 전보다 27.6% 올랐다. 또 간장(930ml)과 식용유(1.8ℓ)의 가격도 각각 46.3%, 13.5%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물가 공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기름값·교육비·식품비 ‘폭등’ “옷 사본지 오래...아프면 큰일”

들의 체감 물가 상승폭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식료품이나 교육물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는 지난 1년간 기름값을 비롯, 교육비, 식료품비, 외식비 등 전반적인 물가가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름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값은 ℓ 당 1천895원에 달한다.

이는 1년 전(1천210원)에 비해 56.6%나 뛰는 것으로, 버스와 트럭 등 서민용 차량 운행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휘발유값 역시 ℓ 당 1천893원으로 1년 전(1천510원)보다 25.4% 뛰는 등 전반적인 물가

가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1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교육 안병만·농림 장태평·복지 전재희

소속 개각... 감사원장 김황식·노사정위원장 김대모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무안 출신의 장태평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채희 한나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3·4면>



안병만 교육



장태평 농림



전재희 복지



김황식 감사원장



김대모 노사정

위원, 언론문화특보에 이성준 전 한겨레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을 각각 임명했으며,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는 신각수 주이스라엘 대사가 각각 기용됐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에는 김정기 선문대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황해도 지사에 민봉기 인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장, 함경남도 지사에 한원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낙점받았다. 이번 인선이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되고 교육부,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만 교체되는 소속 개각에 그침에 따라 최고기 과문으로 빛어진 정국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재필기념관 개관식이 8일 오전 11시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서재필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1992년 착공된지 16년 만이다. 김중채 서재필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개관식에 앞서 관람객들에게 서재필 박사의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구례 35.7도 전남 ‘폭염주의보’ 광주 이틀째 열대야 ‘찜통더위’

7일 전남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또 지난 6일에 이어 7일 새벽에도 광주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5.7도(열지수 38.6도)까지 올라갔으며, ▲곡성 34.8도(38.6도) ▲광양 34.8도(38.5도)의 무

더운 날씨를 보임에 따라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발표했다. 전남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2도 이상, 열지수 33도 이상이 이틀간 지속될 때 기상청에 의해 발효된다. 열지수(蒸氣指數·습도와 기온을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는 ▲54

도 이상이면 열사·일사병 위험이 매우 높으며 ▲41~54도는 신체 활동시 열경련·일사병 피해 위험이 있고 ▲32~41도는 주의를 요하는 단계로 나눠져 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외에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3.2도, ▲화순 35도 ▲순천 33.3도 등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이 30도를 웃돌았다.

또 광주는 7일 새벽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 지난 6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열대야(蒸帶夜·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 현상을 보였다. 곡성(25.1도)과 구례(25도)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서재필 기념관 오늘 개관

보성군 문덕면, 착공 16년만에

서재필기념관 개관식이 8일 오전 11시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서재필기념공원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양 국가보훈처장, 박상천 국회의원, 정중해 보성군수, 백낙환 서울 서재필 기념회 회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4만5천700㎡ 규모의 기념공원에는 기념관과 독립문, 사당, 조각공원, 동

상,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기념관에는 서재필 박사의 유물 7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지난 1992년 서재필 기념공원사업의 일환으로 착공된 서재필기념관은 총 사업비 124억원을 투입, 지난 2004년 완공됐다. 하지만 운영비 부담과 관리 주체를 놓고 전남도와 보성군, 기념사업회 측이 견해를 보

이면서 그동안 개관식을 갖지 못한 채 임시로 관람객에게 관람을 허용해 왔다.

‘반쪽 개관’ 상태였던 서재필기념관은 관리 및 운영비 문제가 풀리면 이번엔 정식 개관하게 됐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기념관을 국가보훈시설로 지정, 매년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 전남도도 5천만원의 운영비 지원 방침을 확정해 정식 개관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념공원 운영은 기념사업회 측이 맡고 운영비는 보훈처와 전남도가 지원할 방침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p>용평 - 마카오</p> <p>1. 마카오 1박2일 1,200,000원</p> <p>2. 마카오 2박3일 1,800,000원</p> <p>3. 마카오 3박4일 2,400,000원</p>	<p>장사 - 장가계</p> <p>1. 장가계 1박2일 1,100,000원</p> <p>2. 장가계 2박3일 1,600,000원</p> <p>3. 장가계 3박4일 2,100,000원</p>	<p>심양 - 백두산</p> <p>1. 백두산 1박2일 1,000,000원</p> <p>2. 백두산 2박3일 1,500,000원</p> <p>3. 백두산 3박4일 2,000,000원</p>	<p>북경 - 만리장성</p> <p>1. 만리장성 1박2일 1,100,000원</p> <p>2. 만리장성 2박3일 1,600,000원</p> <p>3. 만리장성 3박4일 2,100,000원</p>
<p>제주 - 제주</p> <p>1. 제주 1박2일 1,200,000원</p> <p>2. 제주 2박3일 1,800,000원</p> <p>3. 제주 3박4일 2,400,000원</p>	<p>부산 - 부산</p> <p>1. 부산 1박2일 1,100,000원</p> <p>2. 부산 2박3일 1,600,000원</p> <p>3. 부산 3박4일 2,100,000원</p>	<p>인천 - 인천</p> <p>1. 인천 1박2일 1,000,000원</p> <p>2. 인천 2박3일 1,500,000원</p> <p>3. 인천 3박4일 2,000,000원</p>	<p>서울 - 서울</p> <p>1. 서울 1박2일 1,100,000원</p> <p>2. 서울 2박3일 1,600,000원</p> <p>3. 서울 3박4일 2,100,000원</p>